

리만다양체에서 공형반대칭접속의 공액대칭성과 일정곡률조건

허달윤, 리주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나라의 경제를 빨리 추켜세울수 있으며 뒤떨어진 기술을 앞선 기술로 갱신하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0권 62페이지)

논문에서는 기초수학의 한 분야인 리만기하학에서 최근시기 활발히 연구되고있는 공형반대칭접속에 대한 문제를 론의하였다.

선행연구[1]에서는 리만다양체에서 레비-찌비타접속 ∇ 과 공형동등인 반대칭접속을 공형반대칭접속으로 정의하고 곡률텐소르가 영이기 위한 조건을 밝혔으며 그것이 반대칭비계량접속이라는것을 지적하였다. 반대칭비계량접속에 대한 연구에서는 그것의 공액대칭성과 일정곡률성을 확증하는것이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선행연구[3, 5]에서는 비계량대칭접속의 특수한 형태인 아마리-첸조브접속의 공액대칭조건과 일정곡률성이 밝혀졌고 선행연구[2]에서는 한 형태의 반대칭비계량접속에 대한 일정곡률성이, 선행연구[4]에서는 레비-찌비타접속의 일정곡률성이 론의되였다.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기초하여 반대칭비계량접속의 한 형태인 공형반대칭접속의 공액대칭성과 일정곡률조건, 그것의 호상접속의 공액대칭조건과 일정곡률조건을 새롭게 밝혔다. 이것은 중력마당리론과 전자기마당론에서 립자의 자리길특성을 연구하는데 리용될것이다.

리만다양체 (M, g) 에서 리만계량 g_{ij} 의 공형변환 $g_{ij} \rightarrow \bar{g}_{ij} = e^{2\sigma} g_{ij}$ 와 어떤 1-형식 π 가 있어서

$$\nabla_k g_{ij} = -2\sigma_k g_{ij}, \quad T_{ij}^k = \varphi_j \delta_i^k - \varphi_i \delta_j^k \quad (1)$$

을 만족시키는 접속 ∇ 을 공형반대칭접속이라고 한다.[1] 여기서 $\sigma_k = \partial_k \sigma$ 이고 φ_i 는 1-형식 π 의 성분이며 T_{ij}^k 는 ∇ 의 꼬임텐소르이다.

공형반대칭접속 ∇ 의 접속결수는

$$\Gamma_{ij}^k = \{_{ij}^k\} + \sigma_i \delta_j^k + (\varphi_j + \sigma_j) \delta_i^k - g_{ij} (\sigma^k + \varphi^k) \quad (2)$$

이다. 여기서 $\{_{ij}^k\}$ 는 리만계량 g_{ij} 에 관한 크리스토펠기호이다.

공형반대칭접속 ∇ 의 곡률텐소르는 식 (2)를 리용하면

$$R_{ijk}^l = K_{ijk}^l + \delta_j^l \alpha_{ik} - \delta_i^l \alpha_{jk} + g_{ik} \alpha_j^l - g_{jk} \alpha_i^l \quad (3)$$

이다. 여기서 K_{ijk}^l 은 리만계량 g_{ij} 에 관한 레비-치비타접속 $\overset{\circ}{\nabla}$ 의 곡률텐소르이고

$$\alpha_{jk} = \overset{\circ}{\nabla}_j(\sigma_k + \varphi_k) - (\sigma_j + \varphi_j)(\sigma_k + \varphi_k) + g_{jk}(\sigma_p + \varphi_p)(\sigma^p + \varphi^p)/2.$$

곡률텐소르 R_{ijk}^l 에 관한 제1종비양끼항등식은 $R_{ijk}^l + R_{jki}^l + R_{kij}^l = -(\delta_i^l \varphi_{jk} + \delta_j^l \varphi_{ki} + \delta_k^l \varphi_{ij})$ 이고 제2종비양끼항등식은

$$\nabla_h R_{ijk}^l + \nabla_i R_{jhk}^l + \nabla_j R_{hik}^l = 2(\varphi_h R_{ijk}^l + \varphi_i R_{jhk}^l + \varphi_j R_{hik}^l) \quad (4)$$

이다. 여기서 $\varphi_{jk} = \overset{\circ}{\nabla}_j \varphi_k - \overset{\circ}{\nabla}_k \varphi_j$ 이다.

정리 1 리만다양체 (M, g) 에서 식 (1)로 정의되는 공형반대칭접속은 공액대칭이다.

증명 식 (1)로 정의되는 ∇ 의 쌍대접속 $\overset{*}{\nabla}$ 의 접속계수 $\overset{*}{\Gamma}_{ij}^k$ 는 $\overset{*}{\Gamma}_{ij}^k = \Gamma_{ij}^k + Q_{ij}^k$ 로 정해진다. 여기서 $Q_{ij}^k = g^{kl} Q_{ijl}$, $Q_{kij} = -2\sigma_k g_{ij}$ 이다.

따라서 식 (1), (2)를 리용하면 $\overset{*}{\Gamma}_{ij}^k = \{\overset{*}{\Gamma}_{ij}^k\} - \sigma_i \delta_j^k + (\sigma_j + \varphi_j) \delta_i^k - g_{ij}(\sigma^k + \varphi^k)$ 이므로 쌍대접속 $\overset{*}{\nabla}$ 의 곡률텐소르를 구하면

$$\overset{*}{R}_{ijk}^l = K_{ijk}^l + \delta_j^l \alpha_{ik} - \delta_i^l \alpha_{jk} + g_{ik} \alpha_j^l - g_{jk} \alpha_i^l. \quad (5)$$

식 (3)과 (5)를 비교하면 $\overset{*}{R}_{ijk}^l = R_{ijk}^l$ 이다. 따라서 ∇ 는 공액대칭이다.(증명끝)

리만다양체 (M, g) 의 임의의 점에서 자름면곡률이 2차원방향의 선택에 무관계하면

$$R_{ijkl} = K(P)(g_{il} g_{jk} - g_{ik} g_{jl}) \quad (6)$$

이 성립된다.

만일 $K(P) = \text{const}$ 이면 리만다양체 (M, g) 는 일정곡률을 가진다고 말한다.[5]

정리 2 련결인 $n(n \geq 3)$ 차원리만다양체 (M, g) 의 임의의 점에서 자름면곡률이 2차원방향의 선택에 무관계한 공형반대칭접속에 대하여

$$\varphi_h = -\sigma_h \quad (7)$$

이면 리만다양체 (M, g) 는 일정곡률을 가진다.

증명 식 (4)로부터 $R_{ijkl} = g_{lp} R_{ijk}^p$ 임을 고려하면 다음의 식이 성립된다.

$$\nabla_h R_{ijkl} + \nabla_i R_{jhkl} + \nabla_j R_{hikl} = \nabla_h g_{lp} R_{ijk}^p + \nabla_i g_{lp} R_{jhk}^p + \nabla_j g_{lp} R_{hik}^p + 2(\varphi_h R_{ijkl} + \varphi_i R_{jhkl} + \varphi_j R_{hikl})$$

이 식에 식 (6)을 넣고 정돈하면 다음과 같다.

$$[\nabla_h K - 2K(\varphi_h + \sigma_h)](g_{il} g_{jk} - g_{ik} g_{jl}) + [\nabla_i K - 2K(\varphi_i + \sigma_i)](g_{jl} g_{hk} - g_{jk} g_{hl}) +$$

$$+ [\nabla_j K - 2K(\varphi_j + \sigma_j)](g_{hl} g_{ik} - g_{hk} g_{il}) = 0$$

여기에 g^{il} 을 곱하고 i, l 에 관한 축약을 실시하면

$$(n-1)[\nabla_h K - 2K(\varphi_h + \sigma_h)]g_{jk} + [\nabla_i K - 2K(\varphi_i + \sigma_i)](\delta_j^i g_{hk} - \delta_h^i g_{jk}) -$$

$$- (n-1)[\nabla_j K - 2K(\varphi_j + \sigma_j)]g_{hk} = 0.$$

이 식의 양변에 g^{jk} 를 곱하고 j, k 에 관한 축약을 실시하고 정돈하면

$$(n-1)(n-2)[\nabla_h K - 2K(\varphi_h + \sigma_h)] = 0. \quad (8)$$

식 (8)은 $\varphi_h = -\sigma_h$ 이면 $K = \text{const}$ 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식 (7)이 성립되면 리만다양체 (M, g) 는 일정곡률을 가진다.(증명끝)

정리 2는 식 (1), (2)로부터 반대칭비계량접속

$$\nabla_k g_{ij} = 2\varphi_k g_{ij}, \quad T_{ij}^k = \varphi_j \delta_i^k - \varphi_i \delta_j^k, \quad \Gamma_{ij}^k = \{_{ij}^k\} - \varphi_i \delta_j^k$$

이 일정곡률을 가지는 반대칭비계량접속이라는것을 새롭게 보여준다.

선행연구[6]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접속에 대한 물리적의미는 밝혔으나 그것이 일정곡률을 가진다는것은 밝히지 못하였다.

리만다양체 (M, g) 에서 공형반대칭접속 ∇ 의 호상접속 $\bar{\nabla}$ 는

$$\bar{\nabla}_k g_{ij} = -2(\sigma_k + \varphi_k)g_{ij} + \varphi_i g_{jk} + \varphi_j g_{ki}, \quad \bar{T}_{ij}^k = \varphi_i \delta_j^k - \varphi_j \delta_i^k \quad (9)$$

을 만족시키는 접속으로서 접속결수는 다음과 같다.

$$\bar{\Gamma}_{ij}^k = \{_{ij}^k\} + (\sigma_i + \varphi_i)\delta_j^k + \sigma_j \delta_i^k - g_{ij}(\sigma^k + \varphi^k) \quad (10)$$

호상접속 $\bar{\nabla}$ 의 곡률텐소르는 식 (10)을 리용하면

$$\bar{R}_{ijk}^l = K_{ijk}^l + \delta_j^l \sigma_{ik} - \delta_i^l \sigma_{jk} + g_{ik} \tau_j^l - g_{jk} \tau_i^l + \delta_k^l \varphi_{ij} \quad (11)$$

이다. 여기서 $\sigma_{ik} = \bar{\nabla}_i \sigma_k - \sigma_i \sigma_k$, $\tau_{ik} = \bar{\nabla}_i (\sigma_k + \varphi_k) - (\sigma_i + \varphi_i)(\sigma_k + \varphi_k) + g_{ik} \sigma_p (\sigma^p + \varphi^p)$ 이다.

정리 3 $n (n > 4)$ 차원리만다양체 (M, g) 에서 공형반대칭접속 ∇ 의 호상접속 $\bar{\nabla}$ 가 공액대칭이기 위해서는 그것의 릿찌곡률텐소르와 쌍대접속의 릿찌곡률텐소르가 같을것 즉 $\bar{R}_{jk}^* = \bar{R}_{jk}$ 일것이 필요하고 충분하다.

증명 $\bar{\nabla}$ 의 쌍대접속 $\bar{\nabla}^*$ 의 접속결수는 $\bar{\Gamma}_{ij}^{*k} = \{_{ij}^k\} - (\sigma_i + \varphi_i)\delta_j^k + (\sigma_j + \varphi_j)\delta_i^k - g_{ij}\sigma^k$ 이고 곡률텐소르는

$$\bar{R}_{ijk}^{*l} = K_{ijk}^{*l} + \delta_j^l \tau_{ik} - \delta_i^l \tau_{jk} + g_{ik} \sigma_j^l - g_{jk} \sigma_i^l - \delta_k^l \varphi_{ij} \quad (12)$$

이며 식 (11), (12)로부터

$$\bar{R}_{ijk}^l = \bar{R}_{ijk}^{*l} + \delta_j^l \rho_{ik} - \delta_i^l \rho_{jk} + g_{jk} \rho_i^l - g_{ik} \rho_j^l - 2\delta_k^l \varphi_{ij} \quad (13)$$

이다. 여기서 $\rho_{ik} = \tau_{ik} - \sigma_{ik}$ 이다.

식 (13)을 i, l 에 관하여 축약하면

$$\bar{R}_{jk}^* = \bar{R}_{jk} - n\rho_{jk} + g_{jk}\rho_i^i - 2\varphi_{kj}.$$

이 식을 j, k 에 관하여 빗대칭화하고 φ_{jk} 의 빗대칭성을 고려하면서 φ_{jk} 를 구하면

$$\varphi_{jk} = \frac{1}{n-4} \left[(\bar{R}_{jk} - \bar{R}_{kj}) - \left(\bar{R}_{jk}^* - \bar{R}_{kj}^* \right) \right] \text{ 이다. 이 식을 웃식에 넣어 } \rho_{jk} \text{ 를 구하면}$$

$$\rho_{jk} = \frac{1}{n} \left\{ \bar{R}_{jk} - \bar{R}_{jk}^* + g_{jk} \rho_i^i + \frac{2}{n-4} \left[(\bar{R}_{jk} - \bar{R}_{kj}) - \left(\bar{R}_{jk}^* - \bar{R}_{kj}^* \right) \right] \right\}$$

이다. 이 식을 식 (13)에 넣고 정돈하면

$$\bar{V}_{ijk}^* = \bar{V}_{ijk}^l \quad (14)$$

이 성립된다. 여기서

$$\begin{aligned} \bar{V}_{ijk}^* &= \bar{R}_{ijk}^* - \frac{1}{n} \left(\delta_i^l \bar{R}_{jk}^* - \delta_j^l \bar{R}_{ik}^* + g_{ik} \bar{R}_j^* - g_{jk} \bar{R}_i^* - \frac{2}{n(n-4)} \left[\delta_i^l \left(\bar{R}_{jk}^* - \bar{R}_{kj}^* \right) - \right. \right. \\ &\quad \left. \left. - \delta_j^l \left(\bar{R}_{ik}^* - \bar{R}_{ki}^* \right) + g_{ik} \left(\bar{R}_j^* - \bar{R}_i^* \right) - g_{jk} \left(\bar{R}_i^* - \bar{R}_j^* \right) + n \delta_k^l \left(\bar{R}_{ij}^* - \bar{R}_{ji}^* \right) \right] \right), \\ \bar{V}_{ijk}^l &= \bar{R}_{ijk}^l - \frac{1}{n} (\delta_i^l \bar{R}_{jk}^l - \delta_j^l \bar{R}_{ik}^l + g_{ik} \bar{R}_j^l - g_{jk} \bar{R}_i^l) - \frac{2}{n(n-4)} [\delta_i^l (\bar{R}_{jk}^l - \bar{R}_{kj}^l) - \\ &\quad - \delta_j^l (\bar{R}_{ik}^l - \bar{R}_{ki}^l) + g_{ik} (\bar{R}_j^l - \bar{R}_i^l) - g_{jk} (\bar{R}_i^l - \bar{R}_j^l) + n \delta_k^l (\bar{R}_{ij}^l - \bar{R}_{ji}^l)]. \end{aligned} \quad (15)$$

식 (14), (15)로부터 $\bar{R}_{ijk}^* = \bar{R}_{ijk}^l$ 이기 위해서는 $\bar{R}_{jk}^* = \bar{R}_{jk}^l$ 일것이 필요충분하다.(증명끝)

정리 4 련결인 $n (n > 3)$ 차원리만다양체 (M, g) 의 임의의 점 p 에서 공형반대칭접속 ∇ 의 호상접속 $\bar{\nabla}$ 에 대한 자름면곡률이 2차원방향의 선택에 무관계하고

$$2\sigma_h = -\varphi_h \quad (16)$$

이면 리만다양체 (M, g) 는 일정곡률을 가진다.

증명 리만다양체 (M, g) 에서 공형반대칭접속 ∇ 의 호상접속 $\bar{\nabla}$ 에 대한 제2종비앙끼 항등식

$$\bar{\nabla}_h \bar{R}_{ijk}^l + \bar{\nabla}_i \bar{R}_{jkh}^l + \bar{\nabla}_j \bar{R}_{hik}^l = -2(\varphi_h \bar{R}_{ijk}^l + \varphi_i \bar{R}_{jkh}^l + \varphi_j \bar{R}_{hik}^l)$$

과 식 (6)을 리용하면

$$\begin{aligned} &[\bar{\nabla}_h K - K(2\sigma_h + \varphi_h)](g_{il} g_{jk} - g_{ik} g_{jl}) + [\bar{\nabla}_i K - K(2\sigma_i + \varphi_i)](g_{jl} g_{hk} - g_{jk} g_{hl}) + \\ &+ [\bar{\nabla}_j K - K(2\sigma_j + \varphi_j)](g_{hl} g_{ik} - g_{hk} g_{il}) = 0. \end{aligned}$$

이 식에 g^{il} 을 곱하고 축약하면

$$\begin{aligned} &(n-1)[\bar{\nabla}_h K - K(2\sigma_h + \varphi_h)]g_{jk} + [\bar{\nabla}_i K - K(2\sigma_i + \varphi_i)](\delta_j^i g_{hk} - \delta_h^i g_{jk}) - \\ &- (n-1)[\bar{\nabla}_j K - K(2\sigma_j + \varphi_j)]g_{hk} = 0 \end{aligned}$$

이며 이 식에 다시 g^{jk} 을 곱하고 축약을 실시하면 $(n-1)(n-2)[\bar{\nabla}_h K - K(2\sigma_h + \varphi_h)] = 0$ 이다.

따라서 식 (16)이 성립하면 $K = \text{const}$ 이다.(증명끝)

식 (9), (10)으로부터 반대칭비계량접속의 호상접속

$$\begin{aligned} \bar{\nabla}_k g_{ij} &= -\varphi_k g_{ij} + \varphi_i g_{jk} + \varphi_j g_{ki}, \quad \bar{T}_{ij}^k = \varphi_i \delta_j^k - \varphi_j \delta_i^k, \\ \bar{\Gamma}_{ij}^k &= \{_{ij}^k\} + \frac{1}{2}(\varphi_i \delta_j^k - \varphi_j \delta_i^k - g_{ij} \varphi^k) \end{aligned}$$

은 일정곡률을 가지는 반대칭비계량접속의 호상접속이다.

참 고 문 헌

- [1]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Natural Science), 2, 2, 3, Juche102(2013).
- [2]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Natural Science), 2, 1, 3, Juche102(2013).
- [3] E. S. Stepanova; J. of Math. Sci., 147, 1, 6507, 2007.
- [4] S. S. Chern et al.; Lectures on Differential Geometry, World Scientific, 12~161, 2000.
- [5] T. Kurose et al.; Tohoku Math. J., 4, 427, 1994.
- [6] Ho Tal Yun et al.; Filomat, 27, 4, 679, 2013.

주체104(2015)년 10월 5일 원고접수

Conjugate Symmetry and a Constant Curvature Condition of Conformal Semi-Symmetric Connection on a Riemannian Manifold

Ho Tal Yun, Ri Ju Hyang

We newly studied a conjugate symmetry and a constant curvature condition of conformal semi-symmetric connection which was a type of semi-symmetric non-metric connections on a Riemannian manifold, as well as a conjugate symmetric condition and a constant curvature condition of its mutual connection.

Key word: conformal semi-symmetric connection